

# 외국 모자보건사업을 돌아보고

<보사부 간호사업과> 김 근 화

모자보건 사업이란 산전, 산후의 모성보건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맡아 보는 것으로써 그 사망률과 이환률의 감소 및 평균 수명의 연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후 보건소 설치와 더불어 이 모자보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일본 등 4개국의 모자보건 실태를 돌아보고 온 보사부 간호사업과 김근화씨의 얘기를 들어 보기로 했다.

싱가포르에 4주, 필리핀에 2주, 홍콩에 2주, 그리고 일본에 4주간씩 머문 짧은 기간이었으므로 일일이 돌아보지를 못한 것이 유감스러웠으나 내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을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 모자보건사업이 가장 활발한 싱가포르

◇ 싱가포르: —인구 200만으로 겨우 서울시민의 반밖에 안되는 적은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그 규모가 적어서 모자 보건 사업을 하기가 수월하기도 하겠지만 이를 위한 행정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다.

모자보건 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맡아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 Center 가 전국에 33개, Visiting Center 가 20개, Midwifery Center 가 5개, Main Clinic 이 1개, Regional Clinic 이 3개 설치되어 있다.

특히 모자보건 Center 는 전부 여성의 힘으로만 운영되며 의사 1명, 수간호원 2명, 보건간호원 4명, 조산원 5명, 간호보조원 1명, health servant 1명, technician 1명으로 팀을 이루고

있는데, 보건간호원은 간호학교 졸업후 1년간의 훈련과정을 마친 자들이고, 단독조산원도 있어서 이들은 증출 후 4개월간 훈련을 마친 자로서 보조원과 등당한 위치에 있다.

신생아는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 등록이 되면 보건간호계를 거쳐 각 행정보건소에 보내지고, 그 지역 보건간호원이 곧 그 가정방문을 하여 임신부와 신생아를 돌보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K. K. Hospital 에서는 전국의 분만건수중 80%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등록하기가 쉽고 개업의가 분만개조했을 경우에도 곧 보고케 되어 있다.

이와같이 모자보건사업의 청경을 이루는 등록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보건소에서는 환자가 오면 우선 보건간호원이 보고 누구에게 보일 것인가를 판단하여 의사에게 보일 환자는 의사에게, 조산원에게 보일 환자는 조산원에게 보낸다. 이때 임부가 정상일 때는 조산원에게 보내고 이상일 경우만 의사에게 보내

게 된다.

또 피점사도 간호원이 와서 뽑아가고 주사는 보조원이 놓는데 이나라 보조원은 중학교 졸업 후 2년간의 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도시에는 대개 아파-트가 많아서 그 밑에 Clinic 이 있어 편리한 반면에 번두리에는 Visiting center 가 있어 편리하다. 즉 이 Visiting center 에는 늘 가족계획요원과 보조원이 모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다가 clinic 에서 오는 보건간호원과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하여 모자를 돌봐준다.

이 밖에도 midwifery clinic 이란 작은 집을 지어 놓고 조산원을 배치해서 그 곳에서 기거하면서 분만개조와 가족계획사업을 하게 한다.

한편 예방접종도 잘 실시되고 있어서 국민학교에서 신체검사는 출생신고서와 예방접종기록지, 그리고 예방접종을 해도 좋다는 부모의 승낙서를 받은 후에야 하게 되어 있다.

이같이 모자보건에서부터 가족계획 등 모든 보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구 자연증가율이 20.4로서 우리나라의 24.0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싱가포르의 모자보건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충분한 요원으로 내가 다녀본 4개국 중 가장 우수한 편으로 손꼽을 수 있으며, 보건간호원의 위치도 확고해서 보건간호원의 지시로 모든게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학교는 단 1개교 뿐이지만 대우가 좋아서 수급에 부족이 없으며 특히 보건간호원의 자격증만은 엄격해서 영국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미있는 일은 싱가포르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등 여러계통의 인종이 섞여 살고 있으므로 국어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인도어, 영어등 4개국어를 쓰고 있어서 보건간호원도 이 4개국어에 능숙해야 일하기가 편리한 것이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도 언어별로 class 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판프렛이나 간판등도 이 4개국어로 되어 있다.



〈일본 가족계획연맹 상임이사와 상담하는 김근화씨〉

### 외국원조는 많이 받으나 가족계획사업에는 골치

◇ 필립핀 : —우리나라 의사들이 필립핀을 다녀와서 보건소를 만든 탓인지 모든 제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겠다.

보건소의 수가 많고 모자보건 clinic 이 따로 있으며 보건간호원이 그 지역의 분만개조를 담당하고 있으나 워낙 지역이 넓고 섬이 많아서 손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UNICEF 원조로 조산원 훈련 및 주민 부인들을 훈련시켜 이웃의 분만시 응급으로 개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또 도시에는 미숙아 clinic 이 따로 있어서 미숙아만을 돌보고 있는데, 이는 이나라의 국교가 카톨릭교이니 만큼 가족계획 사업을 강력히 실시할 수가 없어 무한정으로 출산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인구 3,700만에 자연증가율이 33.0이란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일부에서는 차츰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나 강력히 밀고 나가지는 못하고 AID 원조로 가족계획 clinic 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이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배우려고 하고 있다.

Clinic 의 관리의 의사가 하고 있고, 간호원은

그 밑에서 일하고 있어 직위가 얇고 증상에 간호사업과는 없지만 감독체제가 잘 되어 있어서 각지역마다 감독간호원이 잘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산과 만을 취급하는 병원과 영아만을 취급하는 병원이 따로 있어서 산과병원의 경우 800 bed의 대규모 병원이 있어서 단독조산원 훈련을 맡아 배출해 내고 있다.

간호학교는 5년제이고 조산원은 간호학교 졸업후 1년간의 훈련과정을 마쳐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후 18개월간의 훈련과정을 마치는 단독조산원제도도 있다.

이 나라도 역시 모자보건사업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86개국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아직 고유한 자기나라 말을 못찾고 있는 서글픈 실정에 놓여 있다. 이는 몇백년간의 식민지 생활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압제하에서도 언어와 문자를 잃지 않고 지켜온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 환자는 많고 손은 모자라고

◇ 홍콩 :—400만 인구를 가진 이 적은 나라는 3개지구로 나누어 위생부에서 모자보건을 담당하고 있다.

모자보건 clinic 이 29개가 있으며 영국식제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개 펠딩 아래층이나, 산업장지대, 농촌지대별로 그 지역에 적합한 지도를 하고 있으며 물론 모두 무료이다.

가족계획 사업은 모자보건 clinic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모자보건 clinic은 아래층에서 하고 윗층에서는 일반환자도 보며 24bed의 산원도 준비되어 있어서 분만개조를 하고 있다.

이 모든 시설은 잘 되어 있으나 환자가 많고 너무 바빠서 가정 방문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 인구가 줄어 노동력이 모자랄 일본

◇ 일본 :—보건소의 기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우리나라에서의 방역과와 모자보건과가 합쳐 예방과로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모자 보건법이 따로 있어서 모든 임부는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신생아의 등록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필요성을 깨닫고 있어서 대개 개인병원 주치의들 찾아 유료로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또 보건소의 「스케줄」이 각 지방 신문에 실려 있어서 그 신문을 보고 자진해서 보건소를 찾아가는데 그 스케줄은 연령별로 3세아보건일, 6세아보건일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보건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극빈자만이 가는 곳으로 오해되어 잘 이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보건소 clinic에선 대개 노인병, 암조기발견, 기타 특수질환의 조기발견에만 기여하게 된다.

이곳의 보건간호원은 간호학교 졸업후 1년간의 훈련과정을 마쳐야 하나 의사나 조산원이 아니면 산모를 다루지 못하게 되어 있다. 즉 아심음을 들어 본다든지, 골반측정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금하고 있다.

이곳 모자 보건 center는 자치운영을 해나가고 있으며 개업조산원을 동원하여 6개의 bed를 준비하고 실비로 분만 개조를 해 주는데, 개인병원보다 싸고 또 잘 해 주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만 개업의사들의 저지로 bed 수를 6개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다고 한다. 그만큼 개업의사들의 주장이 크게 미치고 있다.

일본은 1945년 제 2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 극심한 궁핍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인공임신중절로 가족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처 오히려 인구가 줄고 출산율이 낮아져서 앞으로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부득이 외국에서 노동력을 들여와야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의 뜻있는 사람들은 앞날을 염려하여 아이를 3~4명 낳을 때에는 표창 제도로써 그 아이의 장학금을 주도록 모자보건법에 삽입시키자는 설까지 나돌게 되어 있다.

이에 일부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임신중절의 방법이 나빠서 생기는 피해가 많으며

로 우선 이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루프” 보다는 “헷사리”를 많이 권하고 있다.

간호학교는 일관성이 없이 문교부, 적십자사, 보사부, 병원등에서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1억에 20만명의 간호원(보조원을 포함)을 가지고 있지만 손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집에 들어앉은 간호원을 일선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연구 중이며, 이를 위해 처우개선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같다.

또 간호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간호원 수급부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상 4개국을 돌아본 결과 모자보건사업은 모두가 우리나라보다 앞섰다고 생각되었으나 간호교육만큼은 우리나라가 가장 앞장서 있음을 자부하고 싶다. 시간이 허락적 않아 간호협회에는 들리지 못했으나 일본에서는 간호협회 회관에 투숙했는데, 그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음을 보고 우리 협회 회관도 하루 속히 완공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필자도 과거에 보건소에서 일해 본 일이 있지만 늘 가족계획이니 예방접종이니 하고 분주히 돌아가도 별로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 보람을 못느꼈는데, 이번에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때

한 그 일들이 뚜렷이 드러나 보여 수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보람을 찾은 것 같다. 보건사업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꾸준히 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한편 현재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이니 모자보건이니 하여 한꺼번에 다목적의 성취시키려고 하는데 이번에 돌아온 나라들의 예로 보아 분담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당국에 바라고 싶은 것은 보건간호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처우개선으로 이동을 낮추어 주고, 교통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줬으면 한다. 또 가정방문하는 목적을 뚜렷이 하여 가정방문의 회수를 위주로 하는 경향에서 단 한번의 가정 방문을 하더라도 정말 그 가정의 모든 실정을 파악하여 진정한 가정으로 이끄는 실질적인 가정방문이 되도록 방향을 바꾸어야 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소의 요원확보가 급선무이며, 이 요원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통비나 차량을 내주어 시간이나 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리라 본다.

### 군·민 합동 간호업무 연구발표회

1969년 9월 19일 수도육군병원 강당에서

대한간호협회 군진지부에서는 오는 9월 19일 군, 민 합동으로 간호업무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육군병원, 해군병원의 군간호원과 민간의료기관에서 도합 6명이 참가케 될 이 연구발표회는

군, 민간의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키 위하여 해마다 마련되는 행사이다.

한편 지난 8월 26일에는 육군회관에서 육군 간호장교단 창설 제 21주년을 맞아 기념소연을 개최하여 이날의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